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2, 329 - 343

#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 : 체면, 눈치, 문화적 자기관을 중심으로<sup>†</sup>

송 지 연    박 기 환<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문화특수증후군으로 알려진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특정 사회문화적 변인들, 특히 체면, 눈치, 문화적 자기관과 같은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DSM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은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우울, 삶의 만족도 등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DSM 사회불안은 보는 눈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회귀분석에서는 DSM 사회불안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체면과 주는 눈치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증상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체면이 DSM 사회불안 증상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체면 및 눈치, 특히 주는 눈치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독특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문화적 자기관, 체면, 눈치, 우울, 삶의 만족도

<sup>†</sup> 본 연구는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기환,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02-2164-4924, E-mail: psyclinic@catholic.ac.kr

###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변인

사회불안의 문화특수증후군으로 알려진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후 가해형으로도 표기)은 DSM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장애(이후 DSM 사회불안으로도 표기)와는 달리 자신의 외모, 체취, 얼굴 표정, 또는 시선으로 인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심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 핵심특징이다(조용래, 김은정, 2005).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타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타인들이 그들을 피한다고 믿는다(Iwase, Nakao, Takaishi, Yorifuji, Ikezawa, & Takeda, 2000).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회불안을 Taijin Kyofusho(TKS)로 개념화한 이래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Chang(1997)은 TKS를 사회불안의 동아시아 문화적 양식으로 보고 사회적 이상이 조화에 있다는 점, 특히 참조기준을 타인이나 사회에 두는 양육방식,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양식의 존재, 그로 인해 언어의 내용 뿐 아니라 언어의 형식에 의해서 대인간 감정 표현이 이루어지는 점 등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TKS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오강섭, 허묘연과 이시형(1999)도 동양권에서의 사회공포증은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눈치와 투사, 지나친 배려의식, 상향의식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양권의 사회공포증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양상들이 많으며 또한 동양권 환자들을 DSM에 의거한 사회공포증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인은 체면을 중시

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염려하는 동시에, 상향의식과 함께 끈기 있는 노력과 완벽추구적인 성향이 강한 심성으로 길러지는데, 이러한 상반된 특징들이 사회공포증 환자의 주된 심성으로 볼 수 있고, 가해염려를 동반하는 사회공포증의 경우 개인보다는 타인 중심적이며 집단지향적인 특성에서 유래되는 지나친 배려의식이 주된 심리기제라고 할 수 있다(오강섭 등, 1999).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성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다. 유교의 특징으로는 통제, 질서, 권위, 타인의 선에 대한 관심, 친애감정(親愛感情)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에의 치중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이부영, 차재호, 황필호, 1984). 또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개인의 관계성, 집단관계성 및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한다(Markus & Kitayama, 1991). 이렇게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적 사상이 강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회적 교류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체면과 눈치를 들 수 있는데, 체면은 사회적 얼굴로써, 사회적 당위나 기대와의 합치나 일탈에 따른 떳떳함과 부끄러움, 자존심, 사회적 예의 문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에는 사회적 규준이나 형식이 중요한 참조기준이 되는데, 체면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가진 개인은 사회적 기준, 즉 타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언행을 평가하고 검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눈치란 본심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함축적이거나 위장, 왜곡된 정보 단서를 전달하는 상대의 의도 혹은 내심을 파악하는 과정, 혹은 그 역의 과정이나 현상 또는 능력을 말한다(최상진, 2000). 동아시아 문화권처럼 타인배려적이고 조화

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직접적이고 자기주장적인 표현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수동적·직관적인 표현방식의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 속에서 본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함축적,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상대가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거나, 역으로 상대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안의 본심을 읽고 알리고 하는 눈치 기제가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보다는 집단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특성과, 체면과 눈치의 타인인식적, 타인배려적, 형식을 중시하는 특성들은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해형의 증상은 DSM 사회불안보다 더욱 타인 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으므로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면 혹은 눈치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며,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한 연구에서 체면과 사회불안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는데, 체면의 요소 중에서도 ‘타인인식’ 요인이 사회불안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월, 지위의식’ 요인은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승범, 1995). 또한 오강섭 등(1999)에 따르면, 대인관계 태도에서 자기비하나, 은근성,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태도, 체면이 대인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교성이나 응석은 대인불안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치와 사회불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더 찾기 어려운데,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애착유형과 눈치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본 이경진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양가 애착이 타집단에 비해 눈치 민감성이 높았으며, 눈치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거부의 두려움과 정보 불충분’, ‘관계 중심적’ 요인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이유’ 요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적 자기관과 사회불안 및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은 여러 편 나와 있다. Markus와 Kitayama(1991)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관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단일하고 안정적인 자기로 정의되는데, 이 성향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 사고 및 감정 등의 내적 속성에 민감하며, 자기표현을 중시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성향이 강한 개인은 사회적 지위, 역할 관계 등 외적인 속성에 민감하고,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며,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과 일본의 두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와 Haradat(1997)의 연구에서는 SPS(social phobia scale), SIAS(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TKS(taijin kyofusho scale)와 같은 사회불안과 관련된 척도들에 대해 독립적 자기관은 미국인과 일본인 집단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미국인 집단에서만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일본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TKS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문화적 자기관으로 일본인 집단에서는 독립적 자기관만이 유의하였고, 미국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그러나 Dinnel, Kleinknecht와 Tanaka-Matsumi(2002)에

따르면,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공포증 증상들이 더 높았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표집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독립적 자기관의 차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적 자기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와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공격자기의식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김보경, 2003; 조선영 등, 2005).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독립적 자기관과 사회불안의 부적 상관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나,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도 있고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개인주의-집단주의와의 관련성을 본 김은정과 조용래(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가 다 낮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들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어느 것에도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지 못하여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덜 중시하고 평등한 동료들과의 동료애와 협동도 덜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DSM-IV의 사회불안

가해형과 DSM 사회불안은 명백한 유사점을 가진다. 타인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이나 외모가 관련되는 사회적인 수행 상황이나 상호작용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두려움의 방향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가

해형의 특징적인 두려움은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DSM 사회불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자신이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형은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한다. 이와 달리 DSM 사회불안은 당사자 자신이 창피를 당하거나 무안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두려움의 평가 기준이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자는 타인-지향적(other-oriented, allocentric)이고, 후자는 자기-지향적(self-oriented, egocentric)이다(조용래, 김은정, 2005; Choy, Schneier, Heimberg, Oh, & Liebowitz, 2008).

이시형, 오강섭과 이성희(1991)의 연구에 따르면, 증상에 있어서 DSM 사회불안의 경우 긴장, 적면, 떨림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치심에 의한 자율신경계 증상이 주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형은 자기시선, 자기취, 대인긴장, 표정 등 자율신경계 증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형에 특징적인 증상은 지나친 타인 배려에서 오는 인지적 반응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수단이 될 만한 시선, 냄새, 표정 등이 주제가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회공포증 환자의 성격요인에 대한 이시형, 백상빈, 노경선, 오강섭과 신영철(1999)의 연구에서는, 가해형 환자들에게서 특히 신중성/정열성 항목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형 환자가 비가해형보다 아동기에 좀 더 심한 행동억제의 패턴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남들

에게서 위협을 받는 것을 역으로 투사하여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지적 왜곡을 습득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Iwase 등(2000)은 사회불안 증상들을 사회적 부적절감, 수행 불안, 가해의식형 공포, 완강함(tenacity)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 요인 점수에 따라서 군집 분석을 통해 하위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 환자들은 수행 불안 유형, 가해의식형, 대인 불안(interpersonal anxiety) 유형, 경증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가해의식형과 대인 불안 유형 환자들은 발달적 지표와 병진 적응 지표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발병 연령이 더 빠르며,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의식형 환자들은 네 가지 하위유형들 중에서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서 장애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y 등(2008)은 얼굴 붉어짐이나 몸 떨림과 같은 증상이 아닌 가해의식형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경직된 얼굴 표정이나 불쾌한 냄새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남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TKS 고유 증상과, 이러한 지각된 결함이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줄 것이라는 타인중심적 초점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TKS 질문지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미국과 한국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TKS 증상 심각도는 사회 불안 증상 뿐 아니라 우울 증상과 기능 장애의 심각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김은정과 조용래(2008)에 따르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은 분노억제, 분노통제 부족, 수평적 개인주의 부족과 관련있었던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증상은 분노억제, 분노통제, 수평적 개인주의와 관련되었고, 수행불안증상은 분노관련 변인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DSM 사회불안에 비해 가해형이 분노처리에 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개인주의적인 자기에 초점을 덜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DSM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보다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문화특수증후군으로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문화적 자기관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문화적 특성인 체면이나 눈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증상의 심각도와 우울, 직업적·사회적 장애의 정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전반적인 삶에서의 불만족도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듯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은 사회문화적인 변인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 자기관을 제외하고는 가해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문화적 자기관의 경우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해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특수증후군으로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사회문화적 속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나 가설들에 기초하여 가해형과 특정 사회문화적 변인들, 특히 체면, 눈치, 문화적 자기관과 같은 변

인들이 관련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가해형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간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DSM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자료는 수도권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56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어졌다. 설문문에 참여한 총 563명 중 남자는 206명(36.6%), 여자는 357명(63.4%)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2.83세(표준편차 3.65, 범위 18세~55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만 23.54세(표준편차 3.21), 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2.43세(표준편차 3.82)였다.

### 측정도구

**문화적 자기관 척도 (Self-Constraint Scale).** 독립적 자기관을 측정하는 12문항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측정하는 12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Singelis(1994)가 개발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나타낸다. 문혜신과 오경자가 번안한 도구(김보경, 2003에서 재인용)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69였다.

**눈치 민감성 척도.** 눈치 민감성 척도는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되었으며 눈치 보이는 이유와 눈치 보는 이유로 나뉘어진다(최상진, 최연희, 1989; 최연희, 1990). 눈치 보이는 이유는 하위요인들로 '관계중심', '자신의 이익과 관련', '거부의 두려움과 정보 불충분', '상대방 배려', '규범지위적 관계에 대한 배려'로 구성된다. 눈치 보는 이유의 하위요인들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 '관계중심', '감정중심(상대방 배려와 자신의 인상관리·체면유지)요인'으로 구성된다. 문항들은 눈치 보이는 이유 20문항과 눈치 보는 이유 14문항을 합쳐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눈치 보이는 이유를 '주는 눈치'로, 눈치 보는 이유를 '보는 눈치'라는 약어로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주는 눈치 .87, 보는 눈치 .85, 전체 척도 .92였다.

**체면 민감성 척도.** 최상진과 김기범(2000)의 체면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의식성 체면, 사회격식성 체면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피의식성 체면에는 '남의 평가 의식',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 '남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에 민감'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괴의식성 체면에는 '부탁 거절당할까 걱정', '위신 때문에 부탁을 망설임',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격식성 체면에는 '예절중시', '격식차림', '말실수 할까봐 조심'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점수만을 사용하였는데,

1 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합도는  $\chi^2=479.881$ , GFI=.904, CFI=.914, RMSEA=.087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9였다.

**한국판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척도 (Taijin Kyofusho Scale: TKS).** Kleinknecht 등(1997)이 이전 판(Kleinknecht, Dinnel, Tanouye-Wilson, & Lonner, 1994)을 개정하여 만든 Taijin Kyofusho Scale을 조용래와 김은정(2005)이 번안한 한국판 TKS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환자와 비환자들을 아주 잘 구별하는 것으로 밝혀진 문항들과,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정의적 증상들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검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내적 일치도가 우수하였으며, 기존의 사회불안 척도들인 SIAS 및 SPS와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원판 TKS의 대부분의 문항들은 SIAS 및 SPS 문항들과는 각각 구별되게 다른 요인에 높게 부하된 것으로 밝혀졌다(Kleinknecht et al., 1997).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한 척도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Beck 우울증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가 주어지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2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척도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개발 이래 주관적 안녕감을 재는 척도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척도 중의 하나이며,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중요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와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위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를 구하였고, 체면 민감성 척도의 부합도 지수를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TKS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단계에는 SAD 점수를, 두 번째 단계에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 점수를 투입하였다. 또한 DSM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SAD를 종속변인으로, 첫 번째 단계에 TKS 점수를 투입하고, 나머지 두 번째 단계는 앞 절차와 동일하게 변인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되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 결 과

### 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 관계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TKS는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SAD,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 상호의존적 자기관,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독립적 자기관,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SAD도 대부분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보는 눈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TKS와 SAD의 상관이 .57로 유의하여 SAD의 수준을 통제한 후 TKS와 각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도 살펴 본 결과, 단순상관분석에서 유의했던 독립적 자기관,  $r=.06$ , n.s., 삶의 만족도,  $r=-.06$ , n.s.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들은 여전히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1. 변인들 간 단순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n=563)

	1	2	3	4	5	6	7	8	9
1									
2	.57***								
3	.41***	.38***							
4	.30***	.18***	.60***						
5	.22***	.08	.56***	.78***					
6	-.19***	-.40***	-.10*	.07	.17**				
7	.09*	-.09*	.35***	.32***	.33***	.22***			
8	.42***	.38***	.25***	.17***	.18***	-.21***	-.01		
9	-.26***	-.38***	-.24***	-.18**	.14***	.25***	.07	-.55***	
	1	2	3	4	5	6	7	8	9
	TKS	SAD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	독립적 자기관	의존적 자기관	우울	삶의 만족도
M	78.99	80.36	75.94	91.98	66.02	54.56	54.51	7.42	19.95
SD	31.38	17.37	13.54	14.55	10.92	8.35	7.73	6.56	5.77

\* $p<.05$ . \*\* $p<.01$ . \*\*\* $p<.001$ .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DSM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SAD의 영향을 통제 후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순수하게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미치는 설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DSM에서 정의된 사회불안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SAD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를 투입하여 설명 변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KS를 종속 변인으로 하였을 때, SAD의 수준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전체변량의 33%를 유의하게 설명

해 주었다,  $F(1, 561)=275.78, p<.001$ . 다음으로 SAD 수준이 통제된 후 나머지 변인들이 5.2%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F(6, 556)=57.36, p<.001$ .

SAD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체면,  $\beta=.13, t(556)=2.72, p<.01$ , 주는 눈치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11, t(556)=1.99, p<.05$ .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DSM에서 정의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를 비교하기 위해 이번에는 SAD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TKS의 영향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TKS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를 투입하여 설명 변량의 변화를 살펴

표 2. 가해염려형 사회불안(TKS)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TKS	SAD	1.04	.57	16.61***	.330	.330	275.78***
	독립적 자기관	.06	.02	.45			
	의존적 자기관	.21	.05	1.35			
	체면	.30	.13	2.72**	.382	.052	57.36***
	주는 눈치	.24	.11	1.99*			
	보는 눈치	-.01	.00	-.08			

\* $p<.05$ . \*\* $p<.01$ . \*\*\* $p<.001$ .

표 3. DSM 사회불안(SAD)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B	$\beta$	t	$R^2$	$\Delta R^2$	F
SAD	TKS	.32	.57	16.61***	.330	.330	275.78***
	독립적 자기관	-.51	-.25	-7.26***			
	의존적 자기관	-.32	-.14	-4.06***			
	체면	.33	.26	5.86***	.463	.133	79.85***
	주는 눈치	.04	.03	.66			
	보는 눈치	-.15	-.10	-1.87			

\*\*\* $p<.001$ .

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SAD를 종속 변인으로 하였을 때, TKS의 수준이 SAD 전체변량의 33%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F(1, 561)=275.78, p<.001$ . 다음으로 TKS 수준이 통제된 후 나머지 변인들이 13.3%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F(6, 556)=79.85, p<.001$ .

TKS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적 자기관,  $\beta=-.25, t(556)=-7.26, p<.001$ 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변인이 유의하였고,  $\beta=-.14, t(556)=-4.06, p<.001$ , 체면 변인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 t(556)=5.86, p<.001$ .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불안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아형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우리의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실제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또한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있어 DSM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먼저, TKS로 측정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은 문화적 자기관 중 상호의존적 자기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r=.09, p<.05$ ), 독립적 자기관과는 부적 상관을( $r=-.19, p<.001$ ) 보였다. 이러한 상관은 SAD를 통제한 후 그 양상이 달라졌는데,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상관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r=.17, p<.001$ ) 나타났고, 독립적 자기관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06, n.s.$ ). 또한 SAD를 통제한 후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문화적 자

기관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AD로 측정된 DSM 사회불안은 상호의존적 자기관( $r=-.09, p<.05$ ), 독립적 자기관( $r=-.40, p<.001$ )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독립적 자기관 모두가 SAD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로 볼 때, DSM 사회불안은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지만, 가해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기관의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체면과 눈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이는 사회적 맥락과 자기와의 관련성으로 규정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적 자기관보다 우리의 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특징으로서 체면이나 눈치가 가해형의 특징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부는 일치하면서도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우선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불안 및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보경 등, 2003; 조선영 등, 2005; Dinnel et al., 2002; Kleinknecht et al., 1997). 본 연구에서도 독립적 자기관은 TKS 및 SAD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SAD를 통제한 후에는 TKS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상관 결과가 단순 상관을 보고한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는 TKS와 독립적 자기관의 상관이 상당 부분 사회불안의 특징에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경우, TKS와 정적 상관을 보고한 결과도 있고(Dinnel et al., 2002; Kleinknecht et al., 1997), 일본인 표본에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Kleinknecht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만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TKS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Kleinknecht 등(1997)은 일 본인 표본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TKS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일 본인 집단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TKS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두 변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이러한 해석적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의 상관도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조선영 등, 2005; Dinnel et al., 2002; Kleinknecht et al., 1997)와 상관이 없다는 결과(김보경 등, 2003; Kleinknecht et al., 1997)가 공존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SAD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상당히 약한 상관으로써 많은 표본 수에 통계적 유의성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다른 표본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TKS는 체면, 주는 눈치, 보는 눈치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체면과 주는 눈치가 TKS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AD는 체면, 주는 눈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체면만이 SAD를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체면은 가해형 및 DSM 사회불안과 다 관련된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눈치, 특히 주는 눈치는 주로 가해형과 관련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자신의 내적인 이미지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주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최상진, 유승엽, 1992). 따라서 과시적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고(강길호, 1994; 성영신, 1994; 최상진, 유승엽, 1992), 반대로 방어적, 보호적 자기제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김경호, 2002). 이처럼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과시적일 수도 있고 방어적일 수도 있는, 상반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높은 체면민감성은 앞선 설명의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노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드러나 있는 자신의 신체적, 행동적 이미지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자기보호적으로, 즉 방어적, 회피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사회적 행동을 불편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타인에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가해형의 경우 타인 중심적인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특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독특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주는 눈치의 문항들을 살펴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할지도 모르므로', '상대방이 내 생각이나 요구를 받아들일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을

실수하게 될까봐'와 같은 내용들로 되어 있다. 즉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뭔가 실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장이나 자기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자기주장을 못하는 이면에는 억압되고 처리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투사의 기제를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분노관련 변인들과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은정과 조용래(2008)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 억제와 분노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분노 표출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염려하므로, 직접적인 부정적인 감정표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억제되는 분노 감정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하는 투사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보면, 눈치를 주는, 즉 자신의 의사표현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역으로 투사하여 가해염려적인 불안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TKS는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SAD를 통제 한 후에는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우울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가해형이 우울과 유의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Choy et al., 2008; Iwase et al., 2000)와 일치한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상관 결과는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회불안 자체가 이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반면 가해형의 특징이 더 추가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생 집단에만 적용되는지 임상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었던 문화적 자기 관 외에 체면, 눈치와 같은 동아시아 특수적인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과 DSM 사회불안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들의 차별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불안의 사회문화적 비교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대한 차별적인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체면 척도와 눈치 척도가 아직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폭넓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면과 눈치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인지, 행동적 차원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해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 집단으

로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생에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오강섭 등, 1999)를 볼 때, 청소년을 포함하는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경향성을 가진 정상인들이므로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임상표본, 특히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된 내담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을 문화특수증후군으로 보고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일본이나 서양권 사람들을 함께 포함한 비교 문화적인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대인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38(1), 64-75.
- 이경진 (2000). 애착유형에 따른 눈치민감성의 차이.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부영, 차재호, 황필호 (1984). 한국인의 성격. 서울: 고려원.
- 이시형, 백상빈, 노경선, 오강섭, 신영철 (1999). 사회공포증 환자의 성격요인과 방어기제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6), 1254-1261.
- 이시형, 오강섭, 이성희 (1991). 사회공포증의 임상고찰 (4) -가해의식을 동반한 아형. *신경정신의학*, 30(6), 1004-1013.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2.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조용래, 김은정 (2005).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 한국판 TK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97-411.
- 진승범 (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 최상진, 최연희 (1989). 눈치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눈치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시안.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12-221.
- 장길호 (1994).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공손전략. *한국언론학보*, 30, 11-35.
- 김경호 (2002). 자아존중감, 체면민감성과 자기제시 전략간의 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조용래 (2008).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613-632.
-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 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영신 (1994).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와 과소비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 69-82.

- 최연희 (1990).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hang, S. C. (1997). Social anxiety (phobia) and east asian culture. *Depression and Anxiety*, 5, 115 - 120.
- Choy, Y., Schneier, F. R., Heimberg, R. G., Oh, K., & Liebowitz, M. R. (2008). Features of the offensive subtype of Taijin-Kyofu-Sho in US and Korean patients with DSM-IV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5, 230 - 24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nnel, D. L., Kleinknecht, R. A., & Tanaka-Matsumi, J. (200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4, 75-84.
- Iwase, M., Nakao, K., Takaishi, J., Yorifuji, K., Ikezawa, K., & Takeda, M. (2000). An empirical classification of social anxiety: Performance, interpersonal and offensive.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4, 67-75.
- Kleinknecht, R. A., Dinnel, D. L., Kleinknecht, E. E., Hiruma, N., & Harada, N. (1997). Cultural factors in social anxiety: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and Taijin Kyofusho.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2), 157-177.
- Kleinknecht, R. A., Dinnel, D. L., Tanouye-Wilson, S., & Lonner, W. J. (1994). Cultural variation in social anxiety and phobia: A study of Taijin Kyofusho. *The Behavior Therapist*, 17, 175-17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원고접수일: 2009년 3월 27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6월 11일

게재결정일: 2009년 6월 18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2, 329 - 343

---

# The Sociocultural variables influencing Social Anxiety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 Focusing on Che-myeon, Nun-chi, and Self-Construal

Ji-Youn Song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ocial anxiety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and sociocultural variables. 563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such as Tajin Kyofusho Scale(TK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SAD), Che-myeon Scale, Nun-chi Scale, Self-Construal Scale(SCS),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TKS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ll variables, and SAD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ll variables except bo-neon nun-chi.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he-myeon, ju-neon nun-chi,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redicted the variance of TKS. On the contrary, Che-myeon,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redicted the variance of SAD.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e-myeon and nun-chi, esp. nun-chi may be an important sociocultural factor to influencing social anxiety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anxiety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che-myeon, nun-chi, self-construal,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life